



# VBA 2020 Korea, 재무성과와 ESG 성과의 통합

이번 세미나에 소개되는 2건의 심포지엄은 외부기관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참가하여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일시·장소** 2020. 10. 28.(화) 16:00~18:00, SOVAC 홈페이지 및 유튜브  
**주 제** ESG 측정표준화의 기업노력공유 및 재무성과와 ESG 성과의 통합방안  
**주관(후원)** VBA, SK(기획재정부, 주한독일대사관)

## I 환영사 및 축사<sup>1)</sup> 요약

### • 기업의 측면

- 기후변화 및 팬데믹은 예측하기 힘든 경영환경을 가져왔고, 근본적인 기업의 역할과 새로운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짐
-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했던 기업경영에 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ESG를 반영한 지속가능 경영이 필요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새로운 규칙이 되고 있음
-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기업 연합 더 나아가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이 결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ESG의 표준화 측정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노력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논의를 확산하기를 희망

1) 환영사 및 축사는 환영사: 최태원(SK 회장), 축사(1):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축사(2): H.E. Maria CASTILLO FERNANDEZ(주한 EU 대사), 축사(3): Peter Winkler(주한 독일 부대사), 축사(4): 평화강(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비서장), 축사(5): Snada Ojumbo(UN Global Compact 사무총장)로 진행됨

• 정부의 측면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정부투자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의 대규모 투자(이 중에서 지역에 75조원, 그린뉴딜에 20조원)를 조성할 계획임
- 정부의 재정투자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므로, 민간투자로 확산되어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계기로 그린시대로의 전환, 포용과 공존의 시대,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통해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

• 유럽의 새로운 로드맵(2050년까지)

- 배출권 규제만으로는 해결 못함
- 새로운 기회 및 새로운 고용 등 순환경제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함
- ESG 측정의 지침과 지표 등을 만들어 표준화된 적용이 필요하고, ESG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결합하는 과정 역시 요구되며, 기업 스스로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

II 기조연설: 글로벌 ESG 측정표준화 추진동향

(1) Tom Beagent(영국 PwC Total Impact Measurement & Management 총괄)

• 기업의 역할이 변화해야만 하는 이유

- 다보스 포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새 모델(50년 만에 Davos Manifesto 선언)
- 과거: 기업의 의사결정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지 않았고, GDP 역시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해 왔음
- 현재: 기업은 사회와 환경을 희생하면서 이윤을 창출  
예) 자연자본보다 GDP성장에만 치중했고, 기후변화와 사회환경에 대한 비용부담을 위해 스웨덴과 스위스에서는 탄소가격을 매기고 있음
- 미래: 반영하는 사회와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체제로의 변화 필요  
수익창출을 위한 재무성과를 넘어 기업의 활동이 사회, 환경, 경제에 미치는 결과를 측정하는 체제로 변화



• ESG 지표는 2가지 측면에서 부족

① 기업운영측면에 치중

- 환경영향요소는 기업의 공급망이나 제품사용단계에서 발생
- 이의 해소를 위해 '제품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나 제품의 Value Chain에 대해 평가하는 모델링을 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함

② 'ESG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음

-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결과가 어떤 의미인가를 평가  
예) 용수 사용으로 지역주민들의 물 접근권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Total Impact Measurement&Management 개발

- 기업이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 이는 사회, 환경, 경제, 세금 4개 분야에서 전 Value Chain에 대한 기업영향을 평가
- Total은 기업에 유리한 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각 제공 의미
- Impact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는 의미
- Measurement는 영향의 화폐화를 의미
- Management는 외부공시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정보제공의 의미

• IBC(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측정지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 사회/환경 영향에 대한 수치를 화폐화로 변환하는 측정지표 포함

## (2) Mark Gough(Capital Coalition CEO)

---

### • Capital Coalition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글로벌 협의체

- 전세계 VBA를 포함해 다양한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
- 결성의 이유
  - : 3대(기후, 생태 다양성, 불평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을 못하는 이유는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과제
  - : 자본을 이용하여 자연, 사람, 경제,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
  - : 시스템전환을 위해서는 기업, 정부, 금융기관, 시민사회, NGO, 학계, 과학계 등 전 분야의 참여 필요
  - : 2030년 말까지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함

### • 이를 위해 4개 분야에 집중

- ① 측정방법의 변화: 회계규칙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을 변경하는 것
  - 〈The Transparent Project〉 사업을 통해 EU, VBA, WBCSD가 협의하고 있음
  - 즉 자연, 사회, 인간에 대해 개발된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변경한다는 의미
- ② 소통의 변화
  - 지역단위의 접근이 필요
  - 지역플랫폼(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호주까지 연결된 플랫폼) 마련
  - 지역별로 사람들이 중시하는 현안을 파악하여 소통과 합의된 정의에 따라 변화
  - 4개의 자본(자연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생산자본)에 대한 소통
- ③ 규칙과 인센티브 기제의 변화방법 모색
- ④ 시스템의 변화
  - 자연, 자본, 인적, 생산 관련 자본의 활용
  - 자본접근의 세 가지 변화
    - : 지속적인 영향력 측정
    - : 현재 측정방법(수치) 이상의 가치(Value) 측정 필요
    - : 시스템적인 접근과 종합적 경영 의사결정

### • 기업의 의사결정(경영상 의사결정)을 시스템에 의해서 변화되도록 노력

- Olam(올람): 지속가능성을 넘어 재무부서에 ESG를 적용하여 변화 주도

- BNP Paribas Asset Management(BNP 파리바자산운용)  
: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접근법 적용
- 뉴질랜드 정부: 생활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작업 진행 중
- Kering(케링): 환경손익계정 신설
- ASN 은행: 생물다양성 회계 재무플랫폼 협업 주체

• **시스템 차원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회계 원칙의 뉴노멀화**

- 금융기관, 기업,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든 종류의 자본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변화 중
- 단일 기업이나 단독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협업프로젝트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함

III 주제발표

(1) EU 그린딜을 통한 산업체계 전환노력: Green Accounting Project  
Thomas Verheye(EU 환경총국 수석자문관)

---

• **그린딜 산업 시스템의 현황**

- 환경리스크(환경분야 전체)의 심화는 경제 및 사회에 타격
- 자연자본의 사용, 보호, 회복을 통합적, 포괄적, 미래지향적으로 다뤄야 함
-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이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포괄적·미래지향적 고려도 부족하며, 심지어 시장에 전달되지도 못함
- 전체 제품에서 친환경 제품 점유율은 2~3%에 불과하며, 경제 내에 보급되는 제품의 약 98%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문결과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JP모건 설문조사, 2018)

• **자연자본에 대한 회계기준 수립노력이 중요한 시점**

-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그림이 필요함(공기, 물, 토지, 생물다양성 등 모든 환경요소)
- EU 집행위원회: 자연자본 경영회계부문에서 측정·평가의 표준화된 기준을 개발하고자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추진
- Natural Capital Protocol, Capitals Coalition, WBCSD 등 기관과 협력

• Green Accounting 관련하여 이미 ESG 관련 보고와 공시를 통해 기업경영에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여러 기업이 존재

- Kering은 PwC의 True Cost를 기반으로 Puma가 개발한 체계 적용  
: BASF, Novartis 등 VBA 멤버사들도 비슷한 체계 적용

• 의류산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제시

- 해당 회계연도 중 기업의 환경 의존성과 환경리스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침
- 자연자본의 유형별로 공급망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화폐로 환산하면 그 비중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서, 이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강화수단 마련 가능  
: 보고와 공시를 간단하고 스마트하게 변환하면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반영 가능  
: 유형별 분류를 비중으로 나타내보면,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영향 중 기후변화 영향이 35%로 가장 크며, 나머지 65%도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
- 이는 각 나라에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각 기업이 어느 정도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와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 평가가 시장에 반영되는 선순환 과정을 이끌 수 있음

• Transparent Project

- EU집행위원회에서 재정지원
- 기업과 생물다양성 등 환경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플랫폼이자 주요 기관들과 함께 자연자본 회계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는 프로젝트
- 어디서든 적용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표준기준 마련 필요
- 자연자본에 대한 회계기준 원칙 수립 예정('20년: 1차, '21년: 2차, '22년: 3차)

(2) ESG 측정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Value Balancing Alliance(VBA)

Christian Heller(VBA CEO, BASF)

---

• VBA는 2019년에 설립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 1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4개의 주요 회계법인의 프로보노(Pro Bono) 자문,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정책자문을 하고 있으며, EU는 GA(Green Accounting) 원칙개발을 의뢰

- VBA는 현재 이런 변화에 직면하여,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의사결정의 지속성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
  - : 주주가치의 극대화(현재) → 사회적 가치 최적화(미래)
  - : 산업기반경제(현재) → 무형기반 경제(미래)
  - : 수익기준(현재) → 사회적 책임(미래)

• EU 분류체계는 친환경 경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에 노력

- 보고 및 공시 표준화 기관들이 글로벌 비재무보고 표준의 일원화 논의 시작
- IFRS 산하에 설립되는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표준을 담당할 예정
- 비재무데이터의 창출, 수집, 응용에 대한 방법론 개발 및 테스트의 시도는 미진
- 이를 위해 VBA는 비교가능한 지속성을 위해 ESG, 자연, 사회, 인적자본을 경영회계에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 VBA는 기업경영을 반영하는 두 축인 사회적 가치와 생태계에 대한 기업영향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기반 회계방법론 개발에 노력

- Value Chain에 따라 기업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
  - : CO<sub>2</sub>의 진정한 값이 얼마인지를 산정, 임금·세금 제공의 효익 산정
- 이런 측정으로 기업운영의 사회적 라이선스를 받았는지를 평가
- ESG가 기업의 재무적인 손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하여 기업의 가치평가
- 이는 기존 재무회계시스템의 확장적 개념으로, 친환경적인 공정에 대한 투자자 자산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게 됨
- EU는 VBA에 GA(그린회계)를 공식 의뢰했고, 방법론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예정

• VBA는 참여기업에 3가지 사항에 대해 약속

- ① 네트워크 공유
- ② 방법론 개발팀 일원으로 미래회계표준 마련
- ③ 미래회계 표준의 통찰력 제공과 경험 공유로 지속가능 주도기업으로 성장

(3) ESG 측정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Value Balancing Alliance(VBA)

George Serafeim(하버드대 교수)

- **변화이론(영향력 투자 및 영향력 관리 프로젝트)\_Impact Transparency Management**
- 현재는 자연, 사회, 인적자본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시스템이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고 고려하는 회계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현대경제	변화이론
생산적	사회적
환경오염, 불평등, 소외	환경, 불평등, 소외의 영향력 측정
실물, 금융 측면만 고려한 회계시스템	실물, 금융을 넘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
자연, 사회, 인적 자본에 대한 고려 간과	최근 연구: 전 세계 56개 조직들이 영향을 화폐화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증가
→기업들의 자원배분 오류 발생	→기업들의 자원배분 오류 감소
→지속불가능, 비포용적 경제체제	→지속가능, 포용적 경제체제

- **하버드 IWI(Impact Weighted Accounts Initiative)는 환경, 고용, 제품의 3가지 분야에 대해 연구**

- 기업운영에서 환경영향, 급여수준, 기회제공, 보건·웰빙이 창출하는 영향력 측정
- 자동차, 금융, 제약이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측정
- 최근 하버드대는 데이터와 방법론 공개
  - : 하버드대는 총 13,000 회계연도의 기업운영 환경영향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
  - : 또한 고용영향 측정 방법론 논문 발표(이 방법론을 애플, 머크, 코스트코, 인텔에 적용했을 때 기업들의 인적자원 영향력이 재무제표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

- **이전에는 재무회계시스템이 자본시장의 추동력이었다면, 이후에는 환경적 요소가 반영된 영향력 측정 회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영향력이 반영된 자본시장 구축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임**

- 영향력의 화폐화 → 회계시스템의 변화 → 자본시장의 변화
- VBA의 역할: R&D, 설비투자, 고용, 고객만족 측면에서 가치기반의 의사결정의 사례를 만들고 이를 투자자 및 정부 등과 공유하는 노력 필요
- 가치영향력을 반영하는 경제로의 전환 필요(긍정적 영향에는 인센티브 부여, 부정적 영향에는 과세)

## IV 종합토론

### 좌장 장용석 연세대 교수

- ESG를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가?
- 비재무적·재무적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 ESG 회계의 측정, 표준화, 화폐화 등에 대해 논의

### 토론자 1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 ESG 정보가 투자자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수요를 확대시킬 전망
  - 양적: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음
  - 질적: 충실화된 정보(표준화되고 비교가능한 정보 요구)
- ESG의 표준화는 무엇을 표준화하는 것인가?
  - 보고내용의 표준화: 보고 Topic(기후변화, 수질오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해 우선순위와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
  - 보고단위의 표준화: 연결기준/개별기업기준, 지분법/연결법 등 방법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표준화의 논의가 필요함
- ESG의 표준화가 IFRS만큼 정량화된 국제적 표준화로 가기는 어려울 전망
  - 표준화 가능: 투자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가능
  - 표준화 불가능: 각국의 개별적 입법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불가능

### 토론자 2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

- ESG투자시장 확대: 6.5조달러(2006)→80조달러(2019)→이후 ESG투자가 대세, PwC 추정
- 현재의 ESG 생태계의 문제에 대해 변화가 필요함

현재의 ESG 생태계	(희망) ESG 정보생태계
복잡	단순
조직 다양(70여 개국에 400여 개 조직 존재) 기준 간 내용 차이 대상자 다양 자발적 공시 품질 담보되지 못함	표준화 일원화 비교가능성

- 비교가능한 ESG 정보가 필요하며, IFRS와 같은 표준화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
- IFRS가 1973년에 설립되어 140여 개국이 글로벌 표준화하는 데 약 40년 소요
- ESG 관련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의 통일(통합) 가능한가?
  - : 매우 규모가 큰 작업이고, 어렵고, 힘든 과정일 것임
  - CRD(2014): ESG 정보공시의 표준화 논의(8개 조직 참여) 시작
  - 기준차이 조정 가능한가?
    - : ‘물질로 기준차이 표준화 가능한가?’를 TCFD로 테스트→ 가능하다는 결론
  - VBA(2019): ESG의 영향력 측정, 표준화, 화폐화를 논의
  - IFAC(국제회계연맹, 2020): IFRS에 ESG기준 적용 지지선언
  - VBA, 빅4 회계법인, 대표적 5개 평가기구: 글로벌 표준화 노력선언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열정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표준화 및 통합의 장애요소
    - : 400여 개 기준 간 차이에 대한 통합
    - : 많은 조직들의 이해관계 충돌
    - : 개념, 용어, 기준 등 통일과정에서 시간 소요

### 토론자 3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투자자 관점에서 ESG는 왜 필요한가?
  -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금융적 요소만을 파악하였으나, 2004년부터 ESG(예: 우발채무 등)를 투자(특히 장기투자자)의 지표로 삼기 시작함
  - 투자는 정확한 측정에서 출발하며, 표준화된 방법론에 의해서 평가될 때 분야별 비교가 가능
  - 예) ‘자동차부문에서 현대차/기아차 선택 시 무엇을 볼 것인가?’의 출발점은 ESG가 될 것임



**ESG 중에서 E, S, G 각각의 통합가능성**

- E: 환경 관련해서 통합이 가능하며 용이함: True Cost(700여 개 환경물질 화폐화)
- S: 사회적 통합이 상대적으로 어려움(EU와 타국 간 동물복지 수준 격차 등)
- G: 투자자/주주 관점, 소유경영 분리(영미)/재벌시스템(한국)으로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하여 이 부분의 영향력과 효과 추정이 가장 큰 허들이 될 것임

**토론자 4 강동수 SK SV위원회 부사장**

**• 이해관계자 중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필요**

- 개인과 기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기업이 가치를 측정하는 혁신적 공시의 투명공개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경제 내 선순환구조 마련
- EU 사례: 기업 GA(Green Accounting) 공시 및 보고 → 소비자(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제공 →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와야만 변화와 혁신이 가능

**• 표준화 및 화폐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임**

- ESG에 기반하지 않고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실함 존재
- IFRS가 표준화에 40년 걸렸지만 IT 기술 등으로 가속화될 것이며, 지금이 시작임

